

원자력문화활동의 기반 조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지 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구조물 사건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심리를 흔들었으며, 올해 4월의 총선거, 대북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의 지원,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과 원자력발전소의 입지확보 문제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어서, 지난 수년간의 국민이해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국민 원자력 이해활동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주변환경을 생각해 볼 때 원자력 국민이해사업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수준을 높여 수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21세기를 바라보며 이에 걸맞은 원자력 이해활동을 위해 우리 재단은 96년을 「원자력문화활동의 기반조성의 해」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의욕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환경·여건에 따른 홍보역량 강화

지방자치체의 본격적인 실시와 총

선에 따른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며, 원자력사업 환경 및 여건변동에 따른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지난해의 굴업도 방사성폐기물관리지구 해체에 따른 신뢰도 회복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이며, 우리 재단 내부적으로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홍보인으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부여해 나갈 것이다.

원자력 이해기반 조성

원자력 이해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끊임없는 홍보기법의 연마와 함께 이미 발행하고 있는 <생활과 원자력>을 보다 참신하고 많은 읽을거리가 있는 지면으로 변신시키며, <원자력문화정보>지도 대형화된 판형과 발행부수의 증가로 면모를 일신하는 한편, 원자력 총서 규모의 단행본

과 동화·만화·리플렛 등이 다양한 계층을 향해 찾아갈 것이다.

원자력에너지가 환경에 기여할 뿐 아니라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비전임을 알리는 메시지가 TV·라디오·신문·잡지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될 것이고, 교통·옥외매체는 선명한 색채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친근한 이웃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와 함께 「원자력과 환경」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로 열린 문화공간을 창조하며, 대학교수·대학신문기자·기업체 홍보인 등 각계각층의 여론주도층에 대한 시찰과 견학기회 부여로 원자력의 이해도를 심층화하며, 통신망 등 뉴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기법의 이해활동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기호에 부응하는 계획이 실현되도록 힘쓸 것이다.

주변지역지원사업 대국민 홍보

지방화·자치화 시대에 맞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국민 홍보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부산지역 청소년 원자력 캠프 모습.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차세대교육의 강화로 장기적인 원자력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각 지역에 알맞는 홍보기법이 도입되고 주민과 밀착된 정보가 생산·배포되어 원자력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려 나갈 것이다.

특히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꾸준한 친원자력단체의 육성과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주부들의 모임과 활동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차세대 교육의 강화

차세대 교육의 강화로 장기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교사·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이다.

교육방송매체를 활용한 영상사업의 전개와 함께 교육용·홍보용 영상물의 제작·배포, 교사들에 대한 강습

회, 현장견학과 원자력 캠프의 개설 등 각종 문화행사의 확대로 이들의 지지기반을 확장하며, 아울러 일반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에 원자력계의 바램이 비중있게 다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의견개진에도 힘쓸 것이다.

국제 원자력기관과의 협력 증진

국제 원자력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하며, 이를 위해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심도 깊은 원자력 이해를 추구할 뿐 아니라, ENS, ANS, PBNC 등의 국제대회는 물론 「Spectrum '96 및 체르노빌 사고 10주기 IAEA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원자력 PA 활동을 세계화함으로써, 국민이해는 물론 우리 재단의 위상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시홍보사업 강화

관람객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전시홍보사업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에너지관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한전으로부터 위탁받아 재개관한지 1년 4개월째인 지난해 12월 29일 관람객 1백만명을 돌파한 대전 EXPO 과학공원 내 전기에너지관은, 올해 관람객 1백만명 유치를 목표로 전시관 운영관리체계의 확립과 운영요원의 정예화를 통해 전시 홍보사업의 내실화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원자력산업을 국민적 합의로 이끌어

올해에는 재단의 비전을 제시하는 장기홍보전략이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계량화가 힘든 홍보사업에 객관적인 평가치를 구하는 각종 분석사업을 병행하고, 반핵단체의 동향파악과 국민의 여론 향배를 알기 위한 조사사업이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하여 원자력에 대한 홍보주체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고 전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이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첨단산업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원자력이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결실의 한해가 될 것이다. ☞